

지역 소식통

김제시-이랜드재단
인큐베이팅 사업 MOU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6일 김제시청에서 이랜드재단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랜드인큐베이팅 위기가정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랜드인큐베이팅 위기가정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시,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가정해체예방 및 사회적안전망 구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랜드재단은 지난 30여년 동안 인큐베이팅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6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시장, 관계 부서장을 비롯한 용역사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시는 정부의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급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용역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의 해수 유류 주장에 대해 새만금 중심도시인 김제가 주도적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한 세부사업들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됐다.

먼저 새만금 수질 현황과 수질개선 종합대책 효과 분석, 국내·외 수질개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타당성 조사와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유)한터 조명호 책임연구원의 기본방향, 과업진략, 추진로드맵등 발전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제=곽노태기자

태풍 대비 주민 안전에 '총력'

완주군수, "태풍 바비·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 상황서 선제적 예방·대책마련 강조"

완주군이 8호 태풍 바비의 북상과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엄중한 상황을 맞아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6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8호 태풍과 코로나19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 중인 데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현실로 다가오는 등 위중한 상황이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날 "태풍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상황을 전파하고 사전점검과 예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며 "특히 읍면장이 주민 피해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또 "코로나19의 2차 위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며 "최대한 위



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출한다 해도 확실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거듭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난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재점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간의 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특히 부서별로 비상 단계별 근무체계를 편성·점검하고 위험

지역 통제와 시설물 정비, 예방활동 안내방송 실시, 축사시설 울타리 보수 등 사전 예방조치,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예방 강화,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 구축 등 태풍피해 최소화 예방·점검에 적극 나섰다.

완주군은 완주경찰서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제3회 추경, "1조원 시대를 열다"

예산 1조 129억원... 코로나19 대응·한국형 뉴딜 사업 등에 편성

김제시는 오는 26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 9,546억원보다 582억원 증가한 1조 129억원을 편성,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일반회계는 9,395억원(증 557억원, 6.30%), 특별회계는 735억원(증 26억원, 3.73%)으로 코로나19 대응, 한국형 뉴딜사업, 수해복구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

코로나19로 경직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24억원, 희망일자리사업 17억원, 방역 대응(비

대면 인면인식 발열체크 시스템 구입 등) 11억원, 예측할수 없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총 20억원, 세부사업으로는 이번 8월 집중호우에 대한 배구 마산 배수장 신설공사 10억원, 여수해지구 재해 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정부 뉴딜정책과 관련 연도내 추진가능한 '김제형 뉴딜' 사업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원, 전기화물차·전기골목차

구매지원 등 18억원,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4억원, 필수 현안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382억원, 선안 자연휴양림 조성 26억원, 청년 경력실습농장 조성 21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김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0일에 최종 확정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시민생활이 안정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 용진읍 업체, 다자녀 가정에 외식 상품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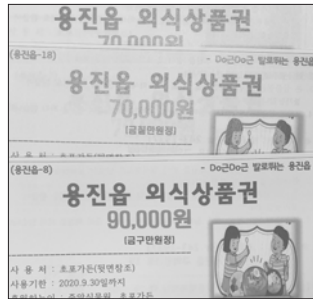
완주군 용진읍의 중앙식물원(대표 심정섭)과 초포가든(대표 양성춘)이 다자녀가정의 외식을 지원하고 나서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26일 용진읍은 관내 업체인 중앙식물원과 초포가든이 다자녀가정 18세대에 140만원 상당의 외식상품권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용진읍에는 3명 이상 많게는 7명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다자녀가정이 총 18세대가 있으며, 가구원수에 비례해

7만원에서 9만원까지 외식상품권 금액이 차등 지원됐다.

특히,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중앙식물원 심대표는 지난 해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버카,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겨울추위를 이기기 위한 전기장판, 종교교 청소년을 위한 교통카드 등을 기탁했으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 중에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거점배움터와 퇴근길 소학행(小學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근처·퇴근길에 손쉽게 배워요"

완주군, 평생학습 거점배움터·소학행(小學幸) 프로그램 진행

완주군에서는 집 근처, 퇴근길 가까운 곳에서 쉽게 지식을 충족할 수 있다.

26일 완주군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거점배움터와 퇴근길 소학행(小學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음 달 7일부터 진행한다. 수강생은 현재 모집 중이다.

평생학습 거점배움터 강좌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거점공간에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총 8개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래피, 감성스파치, 마르카메&손뜨개, 가죽 공예, 초목식물 가드너, 민화, 사군자, 카메라 촬영 프로그램으로 다양하다.

용진읍 소재 가족문화교육원과 완주 침체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시민생활이 안정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학습 퇴근길 소학행(小學幸)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쉽게 들을 수 있는 장소에 학습공간을 마련해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목공예, 홈베이킹, 감성회화 3개 프로그램이 삼례, 봉동, 이서 3개 지역에서 각 4차시씩 운영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군민들은 내달 9일까지 이메일(kchagwan@korea.kr) 또는 방문 접수 하면 되며, 강좌정보, 수강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anju.go.kr) 또는 완주 군립 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wanju.go.kr)를 확인하거나 완주군 평생학습팀으로(290-2283) 직접 전화문의 하면 된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평생학습 문화 분위기를 조성 위해 군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공덕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위한 발로 뛰는 복지행정

김제시 공덕면(면장 천만영)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생활실태를 살피고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복지 행정을 펼쳤다.

소외계층과의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상담은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현장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방문한 가정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와 교통비 과다지

출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구였다.

공덕면장은 어르신들의 교통비와 의료비 과다지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을 연계해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난 24일 가정방문을 통해 발굴한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은 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한 달에 두 번 이상 의료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hotline.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text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reporting incidents to protect children. The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행을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d lists of symptoms and actions to take.